

2020년 9월 10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대형 기술주 기술적 반등에 힘입어 상승

테슬라 +10.92%, 애플 +3.99%, 아마존 +3.77%, MS +4.26%

### 미 증시 특징: 반발 매수세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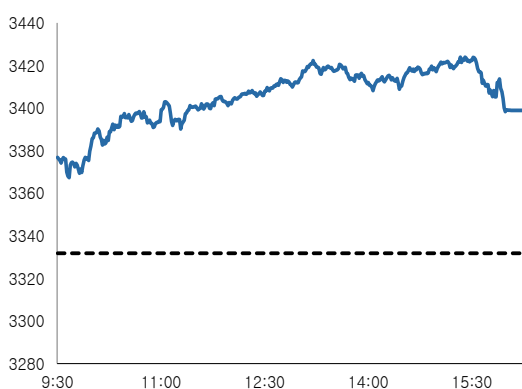
미 증시는 테슬라(+10.92%)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이자 상승 출발. 더불어 ECB 위원의 경제전망에 대한 자신감 표명과 고용지표 개선 등도 긍정적. 물론 아스트로제네카(-1.96%)의 백신 임상 보류 소식과 미-중 마찰 확대 등 부정적인 요인은 있었으나 영향은 제한.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경기 민감주는 부진을 보이는 특징(다우 +1.60%, 나스닥 +2.71%, S&P500 +2.01%, 러셀 2000 +1.45%)

미 증시는 ①대형 기술주 등 개별 기업 ②경기 회복 기대 ③백신 임상 보류 ④미-중 마찰 등이 영향. 지난 2일 고점 대비 나스닥이 테슬라(+10.92%) 등 일부 기업들에 대한 매물이 출회되며 10.2% 급락하자 반발 매수세가 유입. 새로운 내용의 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 컸음. 특히 테슬라가 고점 대비 무려 34.3%나 급락한 이후 반등한 점이 긍정적.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칩 제조사인 퀄컴(+7.54%)가 칩 판매 개선을 이유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 이 결과 퀄컴(+3.87%)을 비롯한 반도체 업종도 동반 상승 했으며 2일 고점 대비 18.2% 급락했던 애플(+3.99%)도 강세.

한편, ECB 위원들이 경제 전망에 대해 민간 소비 증가 등을 기반으로 자신감을 표명해 10 일 있을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달러 약세)를 보인 점도 기술주에 긍정적. 여기에 7 월 미국 채용공고가 지난달(600.1 만건) 보다 증가한 661.8 만건을 기록해 고용 불안이 완화. 이직률도 전월(2.1%) 보다 증가한 2.4%를 기록한 점도 고용 불안 완화 요인.

이런 가운데 아스트로제네카의 백신 임상 보류가 발표. 다만 파우치소장이 안타깝지만 이런 일은 가끔 나오기 때문에 좀더 지켜 볼 것이라고 주장해 시장의 우려를 완화. 미-중 마찰은 지속되고 있는데 중국이 대만과 연계된 미국 정치인과 기업들에 대한 퇴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짐. 그렇지만 이러한 재료는 시장에 영향이 제한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2,375.81	-1.09	홍콩항셱		24,468.93	-0.63
KOSDAQ		869.47	-1.00	영국		6,012.84	+1.39
DOW		27,940.47	+1.60	독일		13,237.21	+2.07
NASDAQ		11,141.56	+2.71	프랑스		5,042.98	+1.40
S&P 500		3,398.96	+2.01	스페인		7,020.90	+0.95
상하이종합		3,254.63	-1.86	그리스		631.74	+0.67
일본		23,032.54	-1.04	이탈리아		19,771.32	+2.0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89%

테슬라(+10.92%)는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다. 반면, 전일 급등 했던 니콜라(-15.34%)는 차익 매물 출회되며 급락하는 등 변동성은 여전했다. 니콜라 지분 인수를 단행한 GM(-1.33%)은 향후 전기차 사업부문을 분리할 수 있으며 이번 지분 인수가 이를 촉발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으나 영향은 제한된 가운데 차익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한편, 테슬라의 강세와 달러 약세 등으로 아마존(+3.77%), 알파벳(+1.55%), MS(+4.26%)가 급등했다. 쿠팡(+7.54%)는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자 급등했고 쉐어(+3.87%), 스카이웍(+5.17%)도 동반 상승했다.

아스트로제네카(-1.96%)는 부작용을 이유로 3차 임상을 보류했으나 영국 보건장관은 백신 개발 차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자 낙폭은 제한되었다. 백신개발 경쟁 업체인 모더나(+4.64%), 바이오엔테크(+4.16%), 화이자(+0.70%) 등은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에봇(+2.89%) 등 진단키트 업체, 줌비디오(+11.05%) 등 언택트 수혜주 들도 동반 상승했다. 슬랙(-13.92%)은 코로나 수혜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이 흐름이 지속될지 의문이라며 가이던스를 철회하자 급락했다. 롤루레몬(-7.40%)도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을 언급하자 급락했다. 티파니(-6.44%)는 루비통으로의 피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05%	대형 가치주 ETF(IVE)	+1.15%
에너지섹터 ETF(OIH)	+0.16%	중형 가치주 ETF(IWS)	+1.20%
소매업체 ETF(XRT)	+1.77%	소형 가치주 ETF(IWN)	+0.84%
금융섹터 ETF(XLF)	+1.01%	대형 성장주 ETF(VUG)	+2.73%
기술섹터 ETF(XLK)	+3.26%	중형 성장주 ETF(IWP)	+1.7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45%	소형 성장주 ETF(IWO)	+2.06%
인터넷업체 ETF(FDN)	+2.54%	배당주 ETF(DVY)	+0.79%
리츠업체 ETF(XLRE)	+1.09%	신흥국 고배당 ETF(DEM)	+1.33%
주택건설업체 ETF(XHB)	+2.5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87%
바이오섹터 ETF(IBB)	+1.95%	미국 국채 ETF(IEF)	-0.05%
헬스케어 ETF(XLV)	+1.75%	하이일드 ETF(JNK)	+0.75%
곡물 ETF(DBA)	-0.34%	물가연동채 ETF(TIP)	+0.06%
반도체 ETF(SMH)	+2.86%	Long/short ETF(BTAL)	+3.04%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52.21	+0.61%	-4.48%	-12.59%
소재	406.70	+2.58%	+0.03%	+3.97%
산업재	653.19	+1.57%	-1.41%	-0.06%
경기소비재	1,222.32	+2.31%	-3.57%	+4.66%
필수소비재	666.37	+1.49%	-0.87%	+2.59%
헬스케어	1,230.48	+1.77%	-1.37%	+0.29%
금융	412.07	+0.91%	-1.05%	-1.92%
IT	2,045.52	+3.35%	-7.55%	+4.51%
커뮤니케이션	201.51	+0.92%	-4.59%	+3.91%
유틸리티	301.76	+1.26%	+1.93%	-1.12%
부동산	224.28	+1.23%	+0.02%	+1.1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외국인 선물 동향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35%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1.49%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5.0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새로운 이슈가 부각 되었다기 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에 기대 상승 했다. 특히 퀴보로 인한 반도체 업종과 테슬라로 인한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 하는 등 최근 하락을 보였던 종목군 위주로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도 최근 하락했던 종목군에 대한 반발 매수세 유입 기대를 높인다. 더불어 달러화와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퀴보 이슈 등은 전일 시간외 선물을 통해 선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상승폭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선물옵션 만기일이다. 대체로 글로벌 주변 이슈가 미-중 마찰 확대 등 여러 악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만기 불확실성 또한 가중되는 경향을 보여 우려가 높았으나 오늘 미 증시 불안이 진정됨에 따라 이러한 불안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최근 베이스스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매수차익 잔고 출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만기 충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물론 여전히 적극적인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급 주체가 부재하다는 점을 감안 외국인의 선물에 따른 웨더독 현상이 출회될 수 있어 이들의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고용지표 개선

7 월 미국 채용 공고는 전월(600.1 만건)이나 예상(595 만건)을 상회한 661.8 만건을 기록해 고용 불안이 완화되었다. 이직률도 전월의 2.1%에서 2.4%로 상승하며 구직의 용이함을 보였다. 물론 고용자 수는 전월(697 만건)을 하회한 578.7 만건으로 줄어드는 등 여전히 고용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EIA의 가격 전망 상향 조정에 기대 상승

국제유가는 미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상승했다. 한편, EIA가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하루 1,138만 배럴로 8월 발표보다 1.2% 상향 조정했으나, 가격 전망을 1.3% 상승한 38.99달러로 발표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대체로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긍정적인 요인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점이 특징이다.

달러화는 미 증시가 견고함을 보이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엔화 또한 약세를 보였다. 한편, 유로화는 ECB 위원들이 유로존 경기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발언 등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가 달러 대비 0.3%대 강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미 국채금리는 미국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자 상승했다. 여기에 고용지표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10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47배)을 하회한 2.30배를, 간접입찰도 12개월 평균(60.8%)을 하회한 58.3%를 기록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여전히 대형 기술주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며 코로나 백신 임상 보류 소식 등은 상승을 제한한 요인이었다.

금은 달러 약세에 기대 상승했다. 더불어 백신 임상 보류 소식은 백신 개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는 점이 상승 요인이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국제유가 강세로 상승했으나 일부 품목은 미-중 마찰 지속 여파로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4% 철근도 0.24%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38.05	+3.51	-11.01	Dollar Index	93.243	-0.22	+0.43
브렌트유	40.79	+2.54	-8.19	EUR/USD	1.1806	+0.24	-0.41
금	1,954.90	+0.60	-1.21	USD/JPY	106.17	+0.13	-0.01
은	27.083	+0.34	-5.45	GBP/USD	1.3004	+0.17	-2.59
알루미늄	1,784.00	-0.45	-0.11	USD/CHF	0.9121	-0.62	+0.15
전기동	6,734.00	+0.99	+0.55	AUD/USD	0.7284	+0.97	-0.74
아연	2,423.00	+0.25	-4.36	USD/CAD	1.3148	-0.66	+0.79
옥수수	360.25	-0.41	+0.63	USD/BRL	5.3064	-1.05	-1.65
밀	543.75	-0.09	-3.59	USD/CNH	6.8328	-0.31	-0.00
대두	978.75	+0.59	+2.51	USD/KRW	1189.10	+0.23	+0.31
커피	128.85	-2.46	-1.94	USD/KRW NDF 1M	1185.04	-0.44	-0.3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700	+2.13	+5.24	스페인	0.336	+1.40	+0.70
한국	1.517	-3.30	-2.00	포르투갈	0.359	+0.20	+1.30
일본	0.031	-0.90	-1.20	그리스	1.147	-1.80	+1.80
독일	-0.462	+3.30	+1.10	이탈리아	1.020	-0.70	+5.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